

法門寺 地宮 출토 香具로 본 唐代 密教 信仰*

최국희**

- I. 머리말
- II. 法門寺 地宮 출토 香具의 구성과 특징
- III. 法門寺 地宮 출토 香具와 密教의 의례적 실천
- IV. 맺음말

I. 머리말

1987년에 발견된 중국 法門寺 地宮은 唐代 황실의 화려한 면모를 보여주는 유물들이 대거 출토되면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특히 이곳은 당대 密教의 만다라를 구현한 상징적 공간으로 해석되었고, 출토된 사리장엄구와 공양구들은 정점에 달했던 당대 밀교의 실체를 입증하는 결정적 사료로 평가받고 있다.¹ 그중 20여 점에 달하는 금속제 香具는 당대 금속공예의 정수이자 당시의 다채로운 향문화와 국제적인 향료 교역의 실태를 투영하는 핵심 유물이다.²

그동안 법문사 지궁 향구에 관한 선행 연구는 주로 향로의 유형화와 개별 기물의 양식 및 용도 분석에 집중되어 왔다.³ 특히 <법문사의물장> 기록을 바탕으로 기물의 명칭과 용도를

* 이 논문은 2023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3S1A5B5A16077844)

** 덕성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

1 任新來, 「試論法門寺地宮文物與唐代佛教密宗的關係」, 『文博』 第4期 (1992), pp. 59-61; Patricia Eichenbaum Karetzky, "Esoteric Buddhism and the Famensi Finds," *Archives of Asian Art* 47 (1994), p. 78; 吳立民·韓金科, 『法門寺地宮唐曼荼羅之研究』 (香港: 中國佛教文化出版有限公司, 1998); 深圳博物館 外編, 『曼荼羅: 法門寺與唐代密教藝術』 (北京: 文物出版社, 2024).

2 姜捷, 「法門寺唐塔地宮出土的香具及其意義」, 董淑燕·黎毓馨 主編, 『香遠益清: 唐宋香具覽粹』 (北京: 中國書店, 2015), pp. 46-49.

면밀히 검토하고,⁴ 기존에 茶具로 오인되었던 일부 기물을 향구로 재분류하거나,⁵ 향구 내부의 잔류 향료의 성분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등 고고학 및 과학적 측면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었다.⁶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 향구들이 '밀교 의례'라는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어떠한 상징성을 지니며, 실제 수행 과정에서 어떻게 기능했는지에 대한 입체적인 고찰은 여전히 미진한 상태이다. 이에 본 논문은 당 황실이 수용한 밀교의 성격을 바탕으로 법문사 향구의 구성, 도상적 특징, 매납 향료 성분을 분석하고 이를 밀교 경전상의 향의 의미와 대조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법문사 향구가 밀교 의례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상징성을 규명함으로써, 당대 밀교 향문화의 실질적인 전개 양상을 복원하고자 한다. 이는 법문사 향구가 단순한 부장품을 넘어, 당시 황실 밀교의 실천적 양상을 담아낸 핵심적인 매개체였음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II. 法門寺 地宮 출토 香具의 구성과 특징

1. 法門寺 地宮의 발굴과 출토 香具

중국 陝西省 寶鷄市 扶風縣에 위치한 법문사 지궁은 1987년 明代 전탑을 재건하기 위한

-
- 3 冉萬里, 「唐代金屬香爐研究」, 『文博』 第3期 (2000), pp. 13-23; 揚之水, 「蓮花香爐和寶子」, 『文物』 第2期 (2002), pp. 70-76; 劉寧, 「法門寺地宮出土的香囊」, 『文博』 第1期 (2003), pp. 57-58; 梁子·謝莉, 「唐人的香事概況」, 『文博』 第4期 (2005), pp. 12-19; 王惠民, 「敦煌與法門寺的香供養具-以“香寶子”與“調達子”爲中心」, 『敦煌學輯刊』 第3期 (2011), pp. 66-71; 冉萬里, 「略論隋唐時期的香爐」, 『西部考古』 第9輯 (2015), pp. 105-152; 董淑燕, 「唐宋時期的香具與佛事」, 董淑燕·黎毓馨 主編, 『香遠益清: 唐宋香具覽粹』, (北京: 中國書店, 2015), pp. 8-45; 魏洁, 「唐宋香炉设计研究」(江南大學 博士學位論文, 2017); 王超, 「從法門寺地宮出土“象首金剛銅香爐”談唐密教中毗那夜迦(Vināyaka)形象的流變」, 『美與時代創意新』 第6期 (2019), pp. 49-51.
 - 4 王倉西, 「淺談法門寺地宮出土部分金銀器的定名及用途」, 『文博』 第8期 (1993), pp. 41-48; 梁子, 「法門寺文物研究的几个問題」, 『文博』 第1期 (2000), pp. 22-26.
 - 5 陳文華, 「法門寺地宮出土的茶具“風爐”質疑」, 『農業考古』 第7期 (2007), pp. 121-123; 任新來, 「法門寺茶器具考釋」, 『農業考古』 第2期 (2013), p. 67-75; 毛小東, 「法門寺唐鑲金銀龜盒實爲香具考」, 『農業考古』 第2期 (2018), pp. 65-67.
 - 6 Meng Ren, Xinlai Ren, Xinyi Wang, and Yimin Yang, “Characterization of the incense sacrificed to the sarira of Sakyamuni from Famen Royal Temple during the ninth century in China,”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19, no. 21 (2022), pp. 1-10.

발굴 조사 과정에서 발견되었다. 지궁은 당대 방형 탑기 중심부 하단에 남향의 一字形 구조로 축조되었으며, 총길이 21.12m, 폭 2~2.5m 규모의 네 개의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부 구조는 계단부와 통로를 거쳐 전실, 중실, 후실, 그리고 후실 하부의 秘龕으로 이어지며, 각 공간은 道門을 통해 구분된다. 특히 제2도문 앞에서는 지궁의 조성 경위와 봉안 목록이 기록된 <大唐咸通啓送岐陽眞身志文>과 <監送眞身使隨負供養道具及恩賜金銀器衣物帳(이하 <법문사의물장>>) 비석 2점이 발견되어, 출토 유물의 성격과 출처를 명확히 입증해주고 있다.⁷ 전실에서 후실 비감에 이르는 각 공간에는 석가모니 진신사리[佛脂舍利]를 봉안한 사리장엄구가 안치되었으며, 그 주변으로 당대 황실이 봉헌한 금은기, 유리기, 비색자기, 비단 직물 등 당대 최고 수준의 공양구들이 매납되었다.⁸ 이러한 황실 차원의 불사리 공양 의례는 당太宗 貞觀 5년(631)에 시작되어, 懿宗 및 僖宗대인 咸通 15년(874) 지궁이 최종 폐쇄될 때까지 지속되었다.⁹

특히 주목되는 점은 법문사 지궁에서 뚜렷한 밀교적 성격을 띠는 유물이 다량으로 출토되었다는 것이다. 捧眞身菩薩像을 비롯하여 8중 사리함, 45존 사리함 등에는 밀교 경전에 근거한 도상들이 정교하게 형상화되어 있다.¹⁰ 이외에도 사천왕상, 비나야카(Vinayaka) 장식의 동향로, 闍伽瓶과 闍伽水碗, 錫杖 등 다수의 밀교 기물이 동반 출토된 점은 당시의 불사리 공양이 밀교적 의례 체계하에 거행되었음을 방증한다.

나아가 지궁 후실은 그 자체로 하나의 입체적 만다라를 구현한 상징적 공간으로 볼 수 있다. 중앙의 사리장엄구를 중심으로 소형 불상, 연꽃 장식, 각종 향구 및 공양구를 유기적으로 배치하고, 四方에 방위를 상징하는 알가병을 안치한 구성은 지궁 내부가 단순한 매납 공간을 넘어

7 <법문사의물장>은 함통(咸通) 15년(874) 지궁 봉인 당시의 매납 목록을 새긴 석판(113.5×68cm)이다. 전면에 刻字된 약 1,700여 자의 명문에는 당 의종과 희종대 봉헌물의 명칭, 수량, 무게, 시주자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는 출토 유물의 성격을 규명하는 핵심 사료일 뿐만 아니라, 874년 이후 지궁이 미교란 상태로 보존되었음을 입증하여 유물 전반의 절대 연대를 확정하는 결정적인 편년 근거가 된다.

8 陝西省法門寺考古隊, 「扶風法門寺塔唐代地宮發掘簡報」, 『文物』 第10期 (1988), pp. 1-28; 陝西省考古研究院 外編著, 『法門寺考古發掘報告』 (北京: 文物出版社, 2007), pp. 1-38.

9 당 황실의 법문사 불사리 공양은 7세기 초 태종대부터 9세기 후반 의종·희종대까지 약 30년 주기로 총 9차례 설행되었다. 현재 지궁 출토 사리장엄구 및 공양구가 의종·희종대의 유물에 집중된 것은 武宗대의 會昌廢佛로 인해 이전 시기의 매납물이 대부분 멸실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주경미, 『중국 고대 불사리장엄 연구』 (일지사, 2003), p. 251, 257; 李發良, 「關於唐代諸帝迎奉法門寺佛骨次數的再探討」, 法門寺博物館 編, 『法門寺博物館論叢(第2輯)』, (西安: 三秦出版社 2009), pp. 6-14.

10 지궁 내 밀교 도상이 구현된 대표적 기물로는 중실 <捧眞身菩薩像>, 후실의 8중 사리장엄구 중 <四天王銀寶函>, <諸尊說法銀寶函>, <如意輪觀音純金寶函>, 후실 비감의 5중 사리장엄구 중 <四十五尊造像銀寶函> 등을 꼽을 수 있다. 박은선, 「法門寺 石室 출토 捧眞身菩薩像 연구: 晚唐期 만다라의 중국적 전개」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9), pp. 48-60; 주경미, 앞의 책, pp. 264-297; 주경미, 「신라 사리장엄구와 중국 불교문화의 상관성 연구」, 『불교학연구』 61 (2019), pp. 229-230.

종교적 의례가 완성되는 聖所였음을 시사한다.¹¹ 특히 <45尊造像銀寶函(FD5:044-4)>의 뚜껑에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五佛을 배치하여 밀교적 우주관을 투영한 점은 만다라가 단순한 배치 원리를 넘어 사리기 제작의 근본 도상으로 채택되었음을 보여준다.¹² 결과적으로 법문사 지궁 유물은 9세기 후반 당 황실이 밀교 의례를 기반으로 불사리 공양을 주도하였으며, 그에 상응하는 고도의 상징성을 갖춘 사리장엄구와 공양구를 봉헌하였음을 의미한다.¹³

당대 밀교는 8세기 초 ‘開元三大師’로 일컬어지는 善無畏(637-735), 金剛智(671-741), 不空(705-774) 등 인도계 선승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전파되었으며, 황실의 적극적인 비호 아래 독자적인 종파로 정립되었다.¹⁴ 선무외와 금강지는 각각 『大毘盧遮那成佛神變加持經(이하 『대일경』)』과 『金剛頂一切如來真實攝大乘現證大教王經(이하 금강정경)』을 한역하여 밀교의 교리적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어 불공은 방대한 경전과 의례를 번역·전승하는 한편, 궁중 도량에서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는 의례를 주관함으로써 호국 밀교 체계를 완성하였다. 당시 당 왕조는 지방 세력의 반란과 吐蕃을 비롯한 주변국의 위협이라는 정치·군사적 위기 속에서 국난 극복을 위한 강력한 주술적 효험을 지닌 밀교를 황실의 핵심 신앙으로 수용하였다.¹⁵ 진언 지송과 의례 실천을 통한 현세 구복적 성격은 불교 조형물과 상징 체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는 종교적 영역을 넘어 당대 사회와 궁중 문화 전반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¹⁶ 법문사 지궁에 구현된 입체적 만다라와 정교한 밀교 도상들은 바로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황실의 신앙적 열망이 투영된 결정체라 할 수 있다.

법문사 지궁 출토 향구는 주로 중실과 후실에 집중적으로 매납되어 있었다. 우선 중실의 경우, 중앙에 위치한 漢白玉靈帳 앞에 <銅製多足形香爐(FD4:018)>를 배치하였고, 이어 후실로 연결되는 제4도문 앞 사천왕상 주변에는 <銀製高圈足形香爐(FD4:019)>를 비롯하여 봉진신보살상, 비색자기 등을 안치하여 공간을 장엄하였다(fig. 1). 지궁의 핵심 공간인 후실은 북면 양측의 사천왕상이 수호하는 8중 사리함을 중심으로 의례 공간이 구축되었다. 사리장

11 Patricia Eichenbaum Karetzky, 앞의 논문, p. 78; 呂建福, 「關於法門寺地宮密教文物及其內涵研究中的若干問題」, 法門寺博物館編, 『法門寺博物館論叢(第1輯)』, (西安: 三秦出版社, 2008), pp. 104-134; 深圳博物館外編, 앞의 책.

12 韓偉, 「法門寺唐代金剛界大曼荼羅成身會造像寶函考釋」, 『文物』第8期(1992), pp. 41-54; 賴依縵·조아담, 「경전들과 존상들-9세기 중국 법문사에서 발굴된 금강계 만다라」, 『회당학보』 17(2012), pp. 270-278.

13 주경미, 앞의 논문(2019), p. 230.

14 김현남, 「唐玄宗의 불교정책과 密教」, 『韓國宗教史研究』 12(2004), pp. 261-265.

15 Patricia Eichenbaum Karetzky, 앞의 논문, p. 78.

16 미찌하다 료오슈 지음, 계환 옮김, 『중국불교사』(우리출판사, 2012), pp. 178-179.

엄구 전면에는 <銀製闍伽水碗(FD5:020·022)>, <銀製多足形香爐 및 銀臺(FD5:002·075)>, <銀製香寶子(FD5:046·007)> 등이 질서 정연하게 배치되어 격식을 갖추었고, 사방 벽면에는 방위를 상징하는 <銀製闍伽瓶(FD5:017·040·083·084)>을 각 1점씩 배치하였다. 이외에도 <銀製盆形香爐(FD5:045)>, <銀製柄香爐(FD5:089)>, <銀製蓮花形香爐(FD5:069)>, <銀製碗形香爐(FD5:027)>, <銀製龜形香爐(FD5:076)>, <銀製香囊(FD5:080·081)>, <銀製香盒(FD5:054·009·094)> 등 다양한 기종의 향구들이 유기적으로 배치되어 있었다(fig. 2).



Fig. 1. <법문사 지궁 중실> photograph of the middle chamber when opened in 1987 (Shaanxisheng kaogu yanjiuyuan, *Report of Archaeological Excavation at Famen Temple* Vol. 2, p. 23, 25)

Fig. 2. <법문사 지궁 후실> photograph of the rear chamber when opened in 1987 (Shaanxisheng kaogu yanjiuyuan, *Report of Archaeological Excavation at Famen Temple* Vol. 2, p. 29)

한편, <법문사의물장>에는 지궁에 안치된 법문사 소유의 불사리 봉송 기물을 비롯하여 의종과 희종, 황실 가문, 승려 및 供奉官, 그리고 밀교 선승 智慧輪(?-876) 등의 시주 품목이 여섯 그룹으로 분류되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¹⁷ 비록 향구 중 일부가 목록에서 누락된 사례가 있으나, 전반적인 기록 체계와 실제 출토 유물의 현황은 대체로 일치하는 양상을 보인다. 특히

17 <법문사의물장>에 기록된 향구의 목록과 시주자는 다음과 같다. ①의종 봉헌: “眞身到內後相次賜到物……香爐一枚(重卅二兩, 元無蓋), 香爐一副(并臺蓋朵帶共重三百八十兩), 香寶子二枚(共重卅五兩)……香案一枚, 香匙一枚, 香爐一副并碗子, ……香合一具, 香寶子二枚, ……乳頭香山二枚(重三斤), 檀香山二枚(重五斤二兩), 丁香山二枚(重一斤二兩), 沉香山二枚(重四斤二兩).” ②희종 봉헌: “新恩賜到金銀寶器衣物……香囊二枚(重十五兩三分), ……龜一枚(重二十兩), ……調達子一對” ③공방관 및 승려 봉헌: “諸頭施到銀器衣物……銀白成香爐一枚(并承鐵共重一白三兩), 銀白成香合一具(重十五兩半)已上供奉官楊復恭施……手爐一枚(重十二兩二分), ……已上尼明肅施.” ④지혜륜 봉헌: “銀闍伽瓶四只(共重六十兩), 銀闍伽水碗一對(共重十一兩), 銀香爐一(重廿四兩), ……已上遍覺大師智慧輪施.” 楊水田, 『法門寺<物帳碑>記帳方法淺析』, 法門寺博物館編, 『法門寺博物館論叢(第1輯)』, (西安: 三秦出版社 2008), pp. 234-238; 董淑燕, 『唐宋時期的香具與佛事』, 董淑燕·黎毓馨主編, 『香遠益清: 唐宋香具覽粹』, (北京: 中國書店, 2015), pp. 8-19 참조.

후실의 유물 분포 양상을 <법문사의물장>의 기술 순서와 대조한 본 결과, 매납 의례가 목록의 서술 체계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되었음이 확인된다. 즉, 공간의 중심부에 의종의 시주물을 기점으로, 그 측면에 회종의 시주물을 안치한 뒤, 그 위로 승려와 공복관의 시주물을 적층하는 방식을 취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혜륜의 공양물을 네 모퉁이에 배치함으로써 의례 공간을 최종적으로 마무리 지었다.¹⁸ 이러한 질서 정연한 배치는 지궁 내 유물 안치가 치밀하게 계산된 의례적 순례의 과정이었음을 시사한다.

2. 法門寺 地宮 출토 香具의 종류와 특징

법문사 지궁에서 출토된 향구는 그 기능과 용도에 따라 크게 네 가지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향을 사르기 위한 薰香具로 다양한 형태의 향로들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 가루 형태의 향재나 香丸 혹은 香餅 등을 보관하는 盛香具로 香盒과 香寶子가 대표적이다. 셋째, 불교 의례에서 聖水로 사용되는 향수인 關伽를 담은 關伽器, 그리고 향을 다루는 데 필요한 각종 香道具 및 香囊이 있다. 이처럼 기능적으로 분화된 향구의 구성은 당대 황실 밀교 의례의 복합적이고 전문적인 면모를 여실히 보여준다.

1) 훈향구

출토된 향로는 그 형태적 특징과 사용 방식에 따라 일정한 장소에 거치하여 향을 사르는 居香爐, 손에 들고 이동하며 의례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긴 손잡이가 달린 柄香爐, 향 가루를 특정한 문양이나 글자 모양[香印]으로 다져 넣어 태우는 방식의 印香爐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대별된다.

(1) 거향로

먼저, 중실에서 발견된 <銅製多足形香爐(FD4:018)>(fig. 3)는 뚜껑 상단의 양련좌 위에 공양하는 모습의 비나야카상을 배치하고, 노신에는 위엄 있는 표정의 獸面足과 鋪首를 교대로 장식하여 시각적 장엄함을 극대화했다. 힌두교 가네샤(Ganeśa)에서 유래한 비나야카 도

18 이나다 나쓰코, 「동아시아 의례 연구의 새로운 시각 -'물품 목록'의 검토에서-」, 『동서인문』 16 (2021), pp. 581-585.

상은 향을 좋아하는 속성과辟邪적 의미를 동시에 지닌다. 이는 향을 괴워魔障을 물리치려는 당대 밀교적 세계관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며,¹⁹ 영장 앞에 안치함으로써 불사리와 내부 공간을 수호하는 상징적 장치로 기능했음을 알 수 있다. 후실의 중앙의 <銀製多足形香爐 및 銀臺(FD5:002·075)>(fig. 4)는 투각된 보주형 뉴와 연꽃과 거북이로 장식된 뚜껑, 鼎形 노신으로 구성되어 있다. 노신과 화형 받침의 하부에는 수면족과 다섯 개의 매듭 장식을 부착했으며, 기면의 명문을 통해 咸通 10年(869) 文思院에서 제작한 황실 공예품임이 확인된다.²⁰ 한편, <銀製盆形香爐(FD5:045)>(fig. 5)는 외반된 구연부에서 하단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노신과 복발형 받침이 접합된 구조이다. 전체적으로 다섯 갈래의 花形을 이루며, 포수와 인동당초문을 장식한 뒤 금도금하였다. 특히 노신 바닥의 “五十兩臣張宗禮進”이라는 명문은 <법문사의물장>에 기록된 “香爐一枚重卅二兩元無蓋”와 수치상 차이를 보인다. 이는 제작 당시 뚜껑을 포함해 50냥이었던 기물의 무게가 의물장 작성 시점에는 뚜껑이 유실됨에 따라 노신만의 무게인 32냥으로 재측정되어 기록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²¹ <銀製高圈足形香爐(FD4:019)>(fig. 6)는 蓮蕾形 뉴가 달린 투공된 뚜껑, 계단형 화형 노신, 그리고 이중벽 구조의 노좌로 되어 있다. 출토 당시 발견된 封貼의 “大銀香爐……臣楊復恭” 목서와 <법문사의물장>내 “銀白成香爐一枚并承鐵共重一百三兩, ……已上供奉官楊復恭施”이라는 기록은 봉헌자가 ‘楊復恭’임을 명확히 뒷받침한다. 일각에서는 <법문사의물장>의 ‘承鐵’이라는 표현을 근거로 이를 다구인 風爐로 비정하기도 하나,²² 『茶經』에 명시된 풍로의 삼족 구조 및 재질적 특성이 이 기물의 이중벽 및 권족 구조와 배치된다는 점, 그리고 봉안 당시 기록이 향로로 명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를 향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²³

19 嚴耀中, 「在中國的加內塞和毗那夜迦」, 『文物』第2期(2017), p. 1, 4; 王超, 앞의 논문, p. 49.

20 향로 바닥에 새겨진 “咸通十年文思院造八寸銀金花香爐一具, 并盤及朵帶環子, 全共重三百八十兩, 匠臣陳景夫, 判官高品臣吳弘愨, 使臣能順”과 향로의 외측·뚜껑·받침 바닥에 각각 표기된 ‘三字號’, ‘一字號’, ‘四字號’는 당시 황실 기물의 엄격한 관리 체계를 보여준다.

21 董淑燕, 앞의 논문, p. 10.

22 韓偉, 「從飲茶風尙看唐代的金銀茶具」, 『文物』第10期(1988), pp. 46-47; 王郁風, 「法門寺出土唐代宮廷茶具及唐代飲茶風尙」, 『農業考古』第7期(1992), pp. 97-98.

23 陳文華, 앞의 논문, pp. 121-123; 任新來, 앞의 논문(2013), p. 70.



Fig. 3. <銅製多足形香爐>, *Incense burner surmounted by a figure of Vināyaka*, Tang Dynasty, gilded bronze, height 42cm, Famen Temple Museum (photograph by the author)

Fig. 4. <銀製多足形香爐 및 銀臺>, *Incense burner with stand*, dated 869, Tang Dynasty, partly gilded silver, overall height 50.5cm; censer: height 29.5cm, stand: height 21cm, Famen Temple Museum (Shaanxisheng kaogu yanjiuyuan, *Report of Archaeological Excavation at Famen Temple* Vol. 2, p. 62)

Fig. 5. <銀製盆形香爐>, *Incense burner*, Tang Dynasty, partly gilded silver, height 14.5cm, Famen Temple Museum (photograph by the author)

<銀製蓮花形香爐(FD5:069)>(fig. 7)는 보주형 뉴와 여의두문이 투각된 반구형 뚜껑, 연관문의 노신, 그리고 연잎이 유려하게 펼쳐진 연화형 노좌로 되어 있다. 이 기물은 과거 <법문사의물장>의 “鍍金銀羹碗子”로 관독된 바 있으나 내부에 탈착 가능한 구형의 內爐[香盞]가 존재한다는 구조적 특징을 근거로 현재는 향로의 일종인 “香爐一副并碗子”로 비정된다.²⁴ <銀製碗形香爐(FD5:027)>(fig. 8)는 완형 노신과 계단형 노좌로 이루어져 있으며, 내부에 외반된 구연을 갖춘鉢形 내로가 삽입된 이중 구조를 취하고 있다. 내로 구연 상단에 부착된 손잡이는 향료 교체 및 세척의 편의성을 갖춘 장치이다. 이 기물은 밀교 승려 지혜륜이 봉헌한 “銀香爐一重廿四兩”를 가리키는 것으로, 단순한 공양구를 넘어 실제 수행 과정에서 사용된 기물이었음을 짐작케 한다. 마지막으로 <銀製龜形香爐(FD5:076)>(fig. 9)는 고개를 들고 전진하는 듯한 거북의 모습을 형상한 동물형 향로로, 등껍질에 개폐식 뚜껑과 콧구멍과 입가에 煙空을 갖추고 있다. 과거 찻가루를 담는 다구로 해석되기도 했으나,²⁵ 기물 내 잔존물 성분 분석과 복제품을 활용한 연소 실험을 통해 향로임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²⁶ 아울러 이 기물이 <법

24 董淑燕, 앞의 논문, p. 11.

25 韓偉, 앞의 논문, p. 52.

26 毛小東, 앞의 논문, pp. 65-67.

문사의물장>의 대구 목록이 아닌 향구 항목에 편성된 점과 거북의 육신을 껍질 속에 감추는 ‘龜藏六’ 사상을 투영했다는 해석은 이 기물이 지닌 종교적 함의를 뒷받침한다.²⁷



Fig. 6. <銀製高圈足形香爐>, *Incense burner*; Tang Dynasty, gilded silver, height 56cm, Famen Temple Museum (photograph by the author)

Fig. 7. <銀製蓮花形香爐>, *Incense burner*; Tang Dynasty, partly gilded silver, height 9.8cm, Famen Temple Museum (photograph by the author)

Fig. 8. <銀製碗形香爐>, *Incense burner*; Tang Dynasty, silver, height 20.3cm, Famen Temple Museum (photograph by the author)

(2) 병향로

<銀製柄香爐(FD5:089)>(fig. 10) 1점은 외반된 구연부와 깊은 복부를 가진 노신, 그리고 연화형 노좌를 갖춘 형태이다. 노신 측면에는 如意形 손잡이가 용접되어 있으며 손잡이와 몸체 사이를 U자형 銀帶로 덧대어 구조를 보강하였다. 손잡이 후면의 명문을 통해 이 기물이 咸通 13年(872) 문사원에서 제작된 황실 기물임이 확인되며,²⁸ 황실이 승려 明肅에게 하사한 후 재봉헌된 내력을 알 수 있다. 특히 실물 전세품이 드문 상황에서 敦煌 藏經洞 출토 幡畫 속 보살이 지닌 기물과 도상적으로 일치하며,²⁹ 炳靈寺 西秦 시기 벽화 이래 지속된 병향로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여의형 손잡이의 형태와 “銀白成手爐”라는 명칭은 이 기물이 불교 및

27 齊東方, 「唐代金銀器考: 以三件龜形器爲例」, 『裝飾』 第12期 (2022), p. 13.

28 손잡이 후면에 “咸通十三年文思院造銀白成手爐一枚并香寶子共重十二兩五錢”이라는 명문이 있다.

29 崔菊姬, 「中國古代長柄香爐」, 『中原文物』 第5期 (2016), p. 79.

황실 의례에서 行香에 사용된 휴대용 향구였음을 뒷받침한다.³⁰



Fig. 9. <銀製龜形香爐>, *Turtle-shaped Incense burner*; Tang Dynasty, partly gilded silver, 13×15×28.3cm, Famen Temple Museum (photograph by the author)



Fig. 10. <銀製柄香爐>, *Incense burner with handle*, dated 872, Tang Dynasty, silver, 8.6×11×44cm, Famen Temple Museum (photograph by the author)

(3) 인향로



Fig. 11. <銀製調達子>, *Incense burner*; Tang Dynasty, silver, crystal, jade, height 2.3cm Famen Temple Museum (Shaanxisheng kaogu yanjiuyuan, Report of Archaeological Excavation at Famen Temple Vol. 2, p. 69)

<銀製調達子(FD5:102·103)>(fig. 11) 2 점은 모서리를 둥글게 마감한 장방형의 2단 구조이며, 상단 중앙에는 원형의 오목한 홈이 마련되어 있다. 檀香木 목심을 은판으로 피복하고 옥과 수정을 감입하여 화려함을 더하였다. 이 기물은 표면의 분향 흔적과 홈 내부의 잔존 향재를 근거로 병향로용 반침으로 비정되기도 하였으나,³¹ 기물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연소 흔적과 구조적 특이성을 고려할 때 당대에 유행한 香篆, 즉 문자나 길상 문양의 틀로 향가루를 압인하여 성형한 뒤 선을 따라 연소시키는 인향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³²

30 이용진, 『魏晉南北朝時代 불교의례용 柄香爐와 居香爐』, 『東洋美術史學』 12 (2021), pp. 72-87.

31 王惠民, 앞의 논문, p. 71.

32 姜捷, 앞의 논문, p. 48.

2) 성향구

(1) 향합

〈銀製香盒(FD5:054)〉(fig. 12左)은 볼록한 뚜껑과 얇은 몸체가 대칭을 이루는 원형 합으로, 하단에는 굽을 갖추고 있다. 기면에 문양을 시문하는 대신 정밀한 연마를 통해 은제 특유의 광택을 강조하였으며, 표면과 바닥에 남은 선반 가공의 흔적은 당시의 제작 공정을 여실히 보여준다. 〈銀製香盒(FD5:009)〉(fig. 12右)은 모서리를 곡선화한 방형의 합으로, 굽에 새겨진 “鄧弘立十五兩”이라는 명문과 〈법문사의물장〉의 “銀白成香合一具重十五兩半已上供奉官楊復恭施”이라는 기록을 통해 봉헌자와 제작 관련자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



Fig. 12. 〈銀製香盒〉, *Incense box*, Tang Dynasty, silver, (左Left) 9.8×18.4cm; (右Right) 9.7×17×12cm, Famen Temple Museum (Shaanxisheng kaogu yanjiuyuan, *Report of Archaeological Excavation at Famen Temple* Vol. 2, p. 53)

Fig. 13. 〈銀製香盒〉, *Lobed box with geese*, Tang Dynasty, partly gilded silver, 2×5.1×3.6cm, Famen Temple Museum (Shaanxisheng kaogu yanjiuyuan, *Report of Archaeological Excavation at Famen Temple* Vol. 2, p. 57)

한편, 해당화 형상을 본뜬 〈銀製香盒(FD5:094)〉(fig. 13)은 뚜껑 상면에는 雙雁紋을 타출한 후 세부 문양을 새기고 금도금하여 입체감을 살렸다. 특히 합 내부에서 발견된 갈색 분말은 성분 분석 결과 乳香과 沈香을 혼합한 합향으로 밝혀졌다.³³ 마지막으로 후실 비감에서 출토된 〈銅製香盒(FD5:047)〉(fig. 14)은 지혜륜이 봉헌한 보함 위에 놓인 채 발견되었다. 뚜껑의 중앙에 새겨진 雙金剛杵 문양을 중심으로 연화문과 여의운문이 장식되어 있으며, 내부에는 침향 수지가 잔존하였다.³⁴

33 Meng Ren, Xinlai Ren, Xinyi Wang, and Yimin Yang, 앞의 논문, p. 2, 5.

34 Meng Ren, Xinlai Ren, Xinyi Wang, and Yimin Yang, 위의 논문, p. 2, 5.



Fig. 14. <銅製香盒>, *Incense box*, Tang Dynasty, bronze, height 4.9cm, Famen Temple Museum(Shenzhen bowuguan, Mandaluo: famensi yu tangdai mijiao yishi, p. 218)

Fig. 15. <銀製香寶子>, *Incense container*, Tang Dynasty, partly gilded silver, (左Left) height 24.7cm; (右Right) height 11.7cm, Famen Temple Museum (Shaanxisheng kaogu yanjiuyuan, *Report of Archaeological Excavation at Famen Temple* Vol. 2, p. 153, 158)

(2) 향보자

향보자 2쌍은 전반적인 기형이 유사하나 세부 도상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들 기물은 <법문 사의물장>의 기록과 실제 출토 정황, 그리고 <如意輪觀音像純金寶函(FD5:011)>에 묘사된 도상을 통해 향로와 세트를 이루어 불교 의례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銀製香寶子(FD5:046:007)>(fig. 15左)는 보주형 뉴가 달린 뚜껑과 원통형 몸체, 연잎 장식의 굽을 갖추었다. 몸체 호문 내에는 ‘郭巨埋兒’, ‘王祥卧冰’과 같은 유교적 효행 고사와 ‘仙人對飲’, ‘蕭史吹簫’ 등의 도교적 신선 사상을 배치하여 당대 사상의 통합적 면모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 기물은 <銀製多足形香爐 및 銀臺>와 공반되어 한 세트를 이룬다. 또 다른 <銀製香寶子(FD5:093:067)>(fig. 15右) 1쌍은 보주형 뉴와 당초문으로 장식된 뚜껑, 중앙부가 수축된 원통형 몸체, 나팔형 굽으로 이루어져 있다. 몸체 전면에는 歌舞 인물상을 배치하고 배경을 당초문으로 가득 채워 생동감을 더하였으며, <銀製蓮花形香爐>와 함께 세트를 이룬다.

3) 알가기

<銀製闍伽瓶(FD5:017:040:083:084)>(fig. 16) 4점은 넓고 평평한 구연부와 짧은 경부, 팽창된 구형 몸체로 되어 있다. 몸체 상부에는 출수구가 마련되어 있으며, 경부와 몸체의 접합부는 여의두문으로 장식하였다. 특히 몸체 중앙의 화형 구획 내에 시문된 쌍금강저 문양은 이 기물이 지닌 밀교적 성격을 드러낸다. 각 알가병의 굽 안쪽에 ‘東’·‘西’·‘南’·‘北’이라는 방위가 명기되어 있는데, 이는 지궁 후실의 사방 모퉁이에 배치되었던 당시 안치 상황을 방증한다.

<銀製闍伽水瓶(FD5:020·022)>(fig. 17) 2점은 외반된 구연부와 기면 전체를 감싼 연판문을 통해 만개한 연꽃의 형상을 사실적으로 재현하였다. 내부 바닥의 연밥 문양과 굽 상부의 마카라(Makara) 및 연잎 장식은 불교적 신성함을 투영한 결과로 이해된다. 완 바닥 내면에 “衙內部 虞侯兼押衙, 監察御使安淑布施, 永爲供養”이라는 발원문이 각인되어 安淑을 봉헌자로 상정할 수 있으나, <법문사의물장>에는 지혜륜의 봉헌물로 기록되어 있다.³⁵



Fig. 16. <銀製闍伽水瓶>, *Arghya water pitcher*, Tang Dynasty, partly gilded silver, height 21cm, Famen Temple Museum (photograph by the author)

Fig. 17. <銀製闍伽水碗>, *Arghya water bowl*, Tang Dynasty, partly gilded silver, height 8cm, Famen Temple Museum (photograph by the author)

4) 향도구

(1) 香案

향안은 향료와 향합 등을 안치하기 위한 받침대로, 법문사 지궁에서 현존하는 유일한 실례인 <銀製香案(FD5:065)>(fig. 18)이 출토되었다. 이 향안은 장방형 版形에 양측 가장자리를 위로 둥글게 말아 올린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하단의 다리는 유려한 S자형 곡선을 그리며, 두 줄의 은대를 고정하여 구조적 견



Fig. 18. <銀製香案>, *Incense stand*, Tang Dynasty, silver, 10.8×15.5×9.5cm, Famen Temple Museum (Shaanxisheng kaogu yanjiuyuan, *Report of Archaeological Excavation at Famen Temple* Vol. 2, p. 147)

35 董淑燕·黎毓馨主編, 『香遠益清: 唐宋香具覽粹』(北京: 中國書店, 2015), p. 166.

고함을 도모하였고, 기물 전면에는 정밀한 연마 흔적이 고르게 남아 있다.

(2) 香匙와 香箸

향로의 화력 유지와 향재를 관리하기 위한 필수 향도구로는 원형의 납작한 머리에 긴 자루가 달린 <銀製香匙(FD5:004)>와 사슬로 연결된 두 개의 젓가락 형태인 <銀製香箸(FD5:052)>가 확인된다. 향시는 향료를 보충하거나 향재의 표면을 고르게 다지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특히 숯불 위에 단열재를 올리고 향을 서서히 가열하는 隔火法에서 공기의 흐름을 제어하여 발향 속도를 조절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향저 또한 불씨의 위치를 미세하게 조정하여 연소 상태를 제어하는 기능을 하였다. 이들 기물은 형태상 다구와 유사하여 혼동의 여지가 있으나, <법문사의물장>의 향구 목록에 명확히 수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향도구였음이 틀림없다.³⁶

(3) 香囊

향낭은 이른바 ‘香毬’라고도 불리며, 대칭을 이루는 두 개의 반구가 정첩과 같고리형 장치에 의해 개폐되는 球形의 가동식 향구이다. 특히 하단 반구 내부에 설치된 두 개의 동심원형 수평고리는 기물의 움직임과 관계없이 내로가 항상 수평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었다.³⁷ 상단의 시슬을 이용해 장막이나 가마, 의복 등에 패용하거나 행향시 활용되었으며, 법문사 지궁에서는 크기가 다른 향낭 2점이 출토되었다. <銀製香囊(FD5:080)>(fig. 19)은 기면을 세 개의 環形으로 구획하여 기러기와 꽃문늪을 배치하였으며, 바탕을 절지화훼문으로 투각하였다. 특히 내로 바닥면까지 도금된 꽃장식을 더하여 황실 기물 특유의 화려함을 극대화했다. 또 다른 <銀製香囊(FD5:081)>(fig. 20)은 상·하 반구에 각각 다섯 개의 원형 구획을 설정하고 내부에 별과 꽃문양을 시문하였다. 바탕은 절지화훼문으로 투각하고 두 반구의 접합부는 당초문을 새겨 장식하였다.

36 姜捷, 앞의 논문, p. 49.

37 “香囊者, 燒香器物也。以銅鐵金銀哈嚨圓作, 內有香囊, 機關巧智, 雖外縱橫圓轉而內常平, 能使不傾。妃后貴人之所用之也。”『一切經音義』第7, T54, No. 2128, p. 346c.



Fig. 19. <銀製香囊>, *Incense burner*, Tang Dynasty, partly gilded silver, diameter 5.8cm, Famen Temple Museum (photograph by the author)

Fig. 20. <銀製香囊>, *Incense burner*, Tang Dynasty, partly gilded silver, diameter 12.8cm, Famen Temple Museum (photograph by the author)



5) 香料

<법문사의물장>에 따르면, 지궁에는 乳頭香, 檀香, 丁香, 沈香 등으로 조성된 총 13근 6량 규모의香山이 봉헌되었다. 그러나 실제 출토된 <描金木山(FD5:101-1~11)>은 부식과 훼손으로 인해 기록보다 적은 수량만이 확인되며, 잔존 무게 또한 1,701.3g에 불과하다. 이처럼 대규모의 향산은 향료를 성형하여 시각적 공양물로 봉헌하는 방식이 당대 불교 의례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였음을 보여준다.³⁸ 한편, 최근 법문사 지궁 출토 금속기 내 잔류물 분석을 통해 <銀製香盒(FD5:094)> 내부에서는 유향와 침향의 합향이 확인되었으며, <銀製函>에서 검출된 황색 물질은 詹糖香(Elemi) 수지로 판명되었다. 또한 지혜륜 봉헌의 <銅製香盒(FD5:047)> 내부의 향목 역시 침향 수지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당대 황실과 고승들이 최고급 향재를 단순한 연소용을 넘어 불교 의례에서 적극 활용하였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³⁹

38 董淑燕, 앞의 논문, p. 13; 權飛, 「法門寺唐塔地宮出土唐代香料初探」, 『農業考古』 第4期 (2016), pp. 246-250 참고.

39 Meng Ren, Xinlai Ren, Xinyi Wang, and Yimin Yang, 앞의 논문, p. 5.

Ⅲ. 法門寺 地宮 출토 香具와 密敎의 의례적 실천

1. 密敎 경전과 의례에서의 향공양

밀교 의례에서 향은 단순한 물질적 봉헌물을 넘어 교리적 근거와 의례적 규범을 바탕으로 수행의 성취를 매개하는 핵심적인 공양 요소로 기능하였다. 우선, 공양 체계의 전개에 따라 그 형태와 상징적 의미는 더욱 세분화된다. 3종 공양에서 향이 도량을 정화하고 장엄하는 外供養의 요소로서 물질적 봉헌 행위를 실천하였다면,⁴⁰ 4종 공양에서는 신체나 존상에 바르는 塗香의 형태로 나타나 수행자의 心意를 법계로 확장시키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⁴¹ 이어 5종 및 6종 공양에 이르러서는 바르는 도향과 피우는 燒香으로 분화되며 의례의 절차성이 강화된다.⁴² 특히 6종 공양 체계에서 도향은 생사의 熱惱를 소멸하는 청정함, 소향은 보리의 공덕이 법계에 두루 퍼지는 확산성을 상징하며, 이는 알가나 花, 燈明 등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번뇌를 씻고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수행의 단계를 정교하게 시각화한다.⁴³ 나아가 실제 공양물을 진언과 手印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향공양이 물질적 차원을 넘어 수행자의 내면적 瑜伽와 결속된 고도의 의례 행위임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陀羅尼集經』 등에 나타난 방대한 공양 규정들은 향공양이 밀교의 교리와 실천을 잇는 독자적이고도 필수적인 수행 체계로 정립되었음을 입증한다.⁴⁴

이러한 향의 활용은 밀교의 핵심 의례인 曼荼羅, 護摩, 灌頂의 전 과정에서 필수적인 기제로 작동한다. 만다라 의례에서 향은 단순한 물질적 봉헌을 넘어 의례 공간을 신성화하고 聖尊을 장엄하는 장치이다. 『대일경』과 그 주석서인 『大毘盧遮那成佛經疏(이하 『대일경소』)』에 의하면, 梅檀, 青木, 苜蓿香, 鬱金 등의 도향과 沈水, 松香, 鬘藍, 龍腦, 白檀, 膠香 등의 소향은 각 三部의 존격에 따라 엄격히 구분되어 사용되었다.⁴⁵ 또한, 향수병인 吉祥瓶 공양은 향의

40 『大毘盧遮那經供養次第法疏』 卷下, 「供養儀式品」 第3, T39, No. 1797, p. 798c.

41 『大毘盧遮那成佛經疏』 卷15, 「秘密曼荼羅品」 第11, T39, No. 1796, p. 734a·b.

42 『蘇悉地羯囉經』, 「供養次第法品」 第18, T18, No. 893a, p. 625b; 『毘盧遮那五字真言修習儀軌』, T18, No. 861, p. 189a.

43 『大毘盧遮那成佛經疏』 卷8, 「入曼荼羅具緣品」 第二之餘, T39, No. 1796, p. 659c, 660a.

44 『陀羅尼集經』 卷3, 「結虛空界法印真言」, T18, No. 901, p. 810b·c.

45 『大毘盧遮那成佛神變加持經』 卷2, 「入曼荼羅具緣真言品」, T18, No. 848, p. 10c, 11a; 『大毘盧遮那成佛經疏』 卷7, 「入曼荼羅具緣品」 第二之餘, T39, No. 1796, p. 658a·b·c.

범주를 공간적·시각적 장엄으로 확장시킨다. 금·은·유리 등의 청정한 재질로 제작된 병에 五寶, 五穀, 五藥과 향수를 채우고 꽃과 나뭇가지로 장엄하여 배치하는 행위는 만다라의 구조적 위계와 결합되어 건축적 공간성을 구축한다.⁴⁶

호마 의례에서 향은 불[火]을 통해 본존에게 공양물을 전달하는 소향의 기능과 의례 전반의 청정성을 유지하는 정화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 『대일경』에 언급된 호마단 설치 후 도향, 화, 등을 차례로 봉헌하고 알가수를 뿌려 정화하는 과정의 반복은 향과 알가가 호마 의례의 물리적·영적 안정을 유지하는 필수 장치임을 의미한다.⁴⁷ 『대일경소』에는 공양물과 장작을 향수로 세 차례 정화하는 규정과 침수향 및 乳木의 구체적 사용법을 제시하며 그 체계성을 더한다. 특히 공양의 시작과 끝에 행해지는 알가 봉헌은 식후에 입을 행구는 행위에 비유되는데,⁴⁸ 이는 알가가 의례의 시작과 끝에서 수행자와 본존을 잇는 최종적인 정화수이자, 의례의 국면을 전환하는 매개체로 활용되었음을 보여준다.

관정 의례에서 향은 수행자의 정화와 범맥 계승을 증명하는 기제이다.⁴⁹ 『대일경』과 『대일경소』에 따르면, 阿闍梨가 수행자의 전신에 도향을 바르고 소향의 향기가 몸과 공간에 스며들게 하는 과정은 수행자의 身心을 부처의 지혜를 담을 수 있는 청정한 法器로 전환하는 상징적 장치이다.⁵⁰

종합하면, 밀교의 주요 의례에서 향공양은 도향(가루 혹은 연고), 소향(연기), 알가수(액체)라는 물질적 상태의 변용을 통해 수행자와 공간을 단계적으로 신성화하였다. 이처럼 밀교의 궤에 따라 정교하게 조율된 향공양은 신체와 공간을 정화하고 공덕을 확산시키며 번뇌를 제거하는 다각적 기능은 수행함으로써, 밀교의 상징 체계와 실제적 의례 행위를 유기적으로 결속시키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2. 法門寺 地宮 출토 香具와 密敎 의례의 향공양

법문사 지궁의 성격을 둘러싸고 학계에서는 크게 세 가지 해석이 제기되어 왔다. 첫째는

46 『大毘盧遮那成佛經疏』卷8, 「入曼荼羅具緣品」第二之餘, T39, No. 1796, p. 659b·c.

47 『大毘盧遮那成佛神變加持經』卷6, 「世出世護摩法品」第二十七, T18, No. 848, p. 43c.

48 『大毘盧遮那成佛經疏』卷8, 「入曼荼羅具緣品」第二之餘, T39, No. 1796, p. 662b, 663a.

49 김영덕, 『밀교문화의 이해』(한국학술정보, 2012), pp. 106-107.

50 『大毘盧遮那成佛神變加持經』卷2, 「入曼荼羅具緣眞言品」, T18, No. 848, p. 12a; 『大毘盧遮那成佛經疏』卷8, 「入曼荼羅具緣品」第二之餘, T39, No. 1796, p. 666a.

밀교 의례를 위해 만다라 형태로 정교하게 설계되었다는 견해이며,⁵¹ 둘째는 사리 봉안을 목적으로 당대 황제릉을 모방하여 조성한 곳이기 때문에 실제 밀교 의례는 거행될 수 없었다는 주장이다.⁵² 마지막으로 수행자 없이도 가상의 의례가 영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기획된 상징적 공간이라고 해석되었다.⁵³ 이러한 다각적인 논의 속에서 출토된 향구들의 구체적인 활용 양상을 살피는 것은 지궁의 실질적 기능을 규명하는 핵심적인 열쇠가 된다.

먼저, 지궁 내 향로의 배치는 사리 수호와 황실 공양의 상징성을 동시에 내포한다. 중실 영장 앞의 비나야카상 향로가 사리와 공간의 수호를 상징한다면, 후실 문 앞에 봉진신보살상과 함께 공반된 고권족형 향로는 당 황제가 불사리를 공양하는 지극한 경배의 행위를 상징한다. 특히 후실에 집중 배치된 향로들은 실제 밀교 의례의 핵심인 소향의 기능을 수행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지궁 후실에서 발견된 향합 내의 갈색 분말은 분석 결과 유향과 침향의 합향으로 밝혀졌다. 이는 보관 형태와 사용 맥락을 고려할 때 수행자가 만다라에 진입하기 전 신체와 기물을 정화하여 본존과 합일될 자격을 갖추는 도향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⁵⁴ 특히 『대일경소』의 삼부의 향 배합 규범에서 침향 위주의 구성이 대일여래 중심의 佛部 계열에 해당한다는 점은 법문사 지궁이 비로자나불 중심의 밀교 도상 체계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음을 뒷받침한다.⁵⁵

그리고 후실 사방의 <銀製闕伽瓶>과 사리함 전면의 <銀製闕伽水碗>은 만다라의 장엄과 정화의 핵심인 알가의 존재를 실증한다. 알가병 곁에 새겨진 '동·서·남·북' 명문은 방위에 따른 배치를 통해 공간 전체를 밀교적 結界로 구축했음을 증명한다.⁵⁶ 특히 이 기물들을 봉헌한 인물이 당대 밀교의 최고 권위자인 지혜륜⁵⁷이라는 사실은, 이들이 단순한 공양구가 아니라 관정

51 발굴에 직접 참여한 韓金科는 후실 내 향제, 사리함 내부의 액체 및 벽면의 그을음 등 물리적 흔적을 근거로 지궁 봉쇄 전 성대한 사리 법회가 열렸다고 주장하였다. 韓金科, 「法門寺地宮唐密曼荼羅世界全面破譯」, 『世界宗教研究』 第3期 (1995), p. 290; 한금과, 「밀교와 중국문화-대흥선사에서 법문사까지」, 『회당학보』 17 (2012), pp. 121-122, 124-125. 한편, 唐普式은 지궁 공간 전체를 만다라의 상징적 구조로 해석하고, 특히 후실 바닥을 水壇으로 삼아 금강계-태장계 만다라를 구현하고 그 앞에 의례에 맞는 공양구들을 배치했다는 점을 들어 실질적인 대규모 밀교 의식이 거행되었다고 추정하였다. 唐普式, 「法門寺塔地宮的唐密曼荼羅之我見-兼與羅昭先生商榷」, 『佛學研究』 6 (1997), pp. 102-103.

52 羅昭, 「略述法門寺塔地宮藏品的宗教內涵」, 『文物』 第6期 (1995), pp. 53-62.

53 Eugene Y. Wang, "Of the True Body: The Famen Monastery, Relics, and Corporeal Transformation in Tang Imperial Culture," in *Body and Face in Chinese Visual Culture*, ed. Wu Hung and Katherine R. Tsiang (Cambridge, MA and 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2005), pp. 79-118.

54 Meng Ren, Xinlai Ren, Xinyi Wang, and Yimin Yang, 앞의 논문, p. 5, 8.

55 『大毘盧遮那成佛經疏』 卷7, 「入曼荼羅具緣品」 第二之餘, T39, No. 1796, p. 658b.

56 『大毘盧遮那成佛經疏』 卷8, 「入曼荼羅具緣品」 第二之餘, T39, No. 1796, p. 659b-c.

57 呂建福, 「晚唐密教高僧智慧輪生平及其思想」, 法門寺博物館編, 『法門寺博物館論叢(第4輯)』, (西安: 三秦出版社,

의식을 집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의례 기물이었음을 시사한다.⁵⁸

특히 후실의 공간 구성은 『佛頂尊勝陀羅尼念誦儀軌法』에 기록된 비로자나불 중심의 만다라 형태 및 공양 절차와 매우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⁵⁹ 후실의 규모는 남북 1.48m, 동서 1.35~1.37m, 높이 1.87m이며, 주벽인 북면이 약간 넓은 사다리꼴 형태를 띠고 있다. 천장 중앙에 부조로 장식된 포수의 입에서 도금된 은제 연꽃 장식이 피어나는 형태로 조형되어 있다. 동면과 서면에는 14행 17열로 총 476尊의 소형 불상이 새겨져 있으며, 각 불상 측면에는 공양자의 이름이 명기되어 있다.⁶⁰ 실제로 천장의 대형 연꽃 장식, 북면 중앙에 안치된 8중 사리함과 그 전면에 놓인 알가수완과 다족형 향로 및 향보자 등은 『불정존승다라니염송의례법』에 명시된 의례의 중심축을 형성한다. 그 좌우로 분형 향로, 조달자, 향합, 향낭, 병향로, 거북형 향로 등 다종의 향구와 다량의 금은기, 유리기,⁶¹ 자기 등을 안치하고, 나아가 사방 벽면에 의도적으로 배치한 알가병은 해당 의례의 규범을 물리적 공간에 충실히 구현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fig. 2).

이는 법문사 지궁이 사리 안치를 넘어 실질적인 밀교 의례 공간으로서 기능하였음을 시사한다. 8세기 불공이 한역한 해당 의례가 망자의 천도와 업장소멸, 수명연장을 위한 강력한 방편이었다는 점은 특히 주목된다. 당대 마지막 불사리 봉영 당시, 급작스럽게 봉어한 의종의 명복을 빌고 어린 희종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지궁 내에서 해당 다라니가 염송되었을 개연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결국 법문사 지궁의 향구들은 단순한 봉헌물을 넘어, 황실의 권위와 밀교의 실천적 의례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追善과 加護를 수행하기 위한 실무적 의식구로 기능하였다. 이들은 香煙을 통해 인간의 세계와 불보살의 세계를 매개하며, 망자의 해탈과 왕실의 번영을 동시에 염원

2012), pp. 149-151.

58 任新來, 앞의 논문(1992), p. 61; Eugene Y. Wang, 앞의 책, p. 107; Eugene Y. Wang et al., *Secrets of the Fallen Pagoda: The Famen Temple and Tang Temple and Tang Court Culture* (Singapore: Asian Civilisations Museum, 2014), pp. 98-99; 董淑燕, 앞의 논문, p. 18.

59 “夫念誦陀羅尼法, 先於三昧耶曼荼羅見聖眾, 得灌頂, 知本尊……. 上安帳蓋, 四面懸幡. 道場四邊, 晨朝奉獻乳糜, 齋時獻酪飯并甜膩食, 及以諸漿兼諸果子. 四門安四香爐, 四隅安四淨瓶, 盛香水插花或青葉樹枝, 以為供養. 四角燃四盞酥燈. 道場前, 於念誦者座前, 安置闍伽香水兩碗, 所盛供養, 取金, 銀, 鍍銅, 瓷器, 或新瓦器, 或螺盃, 或新淨葉, 餘並不堪. 欲盛食時, 先淨洗器, 覆之以香煙熏內. 既盛食已, 又須香烟熏之, 以無能勝陀羅尼加持水灑之, 則於壇中右旋布列. 然後於壇前安卑脚床子, 去地半寸, 或茅草薦, 或藉以淨物, 念誦者坐之.” 『佛頂尊勝陀羅尼念誦儀軌法』, T19, No. 972, p. 364b-c.

60 陝西省考古研究院 外 編著, 앞의 책, pp. 30-38.

61 법문사 지궁 후실 출토 유리기를 다기와 주기 등의 식기로 실증한 연구는 朴昭垠, 「唐代法門寺地宮 출토琉璃器 연구」(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5), pp. 58-67.

했던 당대 밀교 신앙의 상징적·실천적 위상을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IV. 맺음말

본 연구는 법문사 지궁 출토 향구를 중심으로 당대 황실 밀교의 성격과 기물의 종교적 위상을 고찰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당대 불교문화의 寶庫로 주목받은 지궁 유물 중, 상대적으로 미진했던 향구의 의례적 기능에 주목하였다. 이에 향구의 구성과 도상을 <법문사의물장> 및 『대일경』 등 밀교 경전의 의례 체계와 대조 분석하여 당대 밀교의 실천적 향공양 양상을 추적하였다.

그 결과, 법문사 지궁의 향구는 경전상의 도향, 소향, 알가수 공양 체계를 물리적 공간에 완벽히 구현한 결과물로 확인되었다. 관념적 의례 규범이 향합, 향로, 알가병 등의 유물 조합으로 실증된 것이다. 더불어 지궁 후실의 기물 배치는 『불정존승다라니염송의례법』의 만다라 구조에 기반하고 있으며, 해당 향구들이 불사리 봉영 및 의종·희종을 위한 황실 의례의 핵심 공양구로 기능했음을 규명하였다.

결론적으로 법문사 지궁의 향구는 단순한 헌납품이 아니라, 황실의 권위와 밀교 신앙이 응집된 상징적 매개체이다. 이는 향연을 매개로 世俗과 聖界를 연결하며 당대 밀교 의례의 실천적 지위를 증명한다. 본 논문은 그간 물질 자료의 한계로 인해 가려져 있던 밀교 의례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복원하고, 향구의 종교적 가치를 재조명했다는 데 학술적 의의가 있다.

* 주제어(keywords)_당대(Tang Dynasty), 법문사(Famensi), 밀교(Esoteric Buddhism), 불정존승다라니(Sūtra of the Dhāraṇī of the Uṣṇīṣa Vijaya), 만다라(Mandara), 향구(Incense implements), 향로(Incense burner), 도향(Anointing incense), 소향(Burning incense), 알가수(Argcha water)

■ 투고일 2026년 1월 19일 | 심사개시일 2026년 1월 26일 | 심사완료일 2026년 2월 10일 ■

참고문헌

1. 사료

- 『陀羅尼集經』
『大毘盧遮那經供養次第法疏』
『大毘盧遮那成佛經疏』
『大毘盧遮那成佛神變加持經』
『佛頂尊勝陀羅尼念誦儀軌法』
『蘇悉地羯囉經』
『一切經音義』

2. 한국어 문헌

- 김영덕, 『밀교문화의 이해』, 한국학술정보, 2012.
김영덕 역주, 『대일경』, 동국역경원, 2007.
_____, 『대비로자나성불경소』, 소명출판, 2008.
김현남, 「唐玄宗의 불교정책과 密敎」, 『韓國宗敎史研究』 12, 2004.
賴依縵·조이단, 「경전들과 존상들: 9세기 중국 법문사에서 발굴된 금강계 만다라」, 『회당학보』 17, 2012.
미찌하다 료오슈 지음, 계환 옮김, 『중국불교사』, 우리출판사, 2012.
朴昭垠, 「唐代 法門寺 地宮 출토 琉璃器 研究」,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5.
박은선, 「法門寺 石室 출토 捧眞身菩薩像 연구: 晚唐期 만다라의 중국적 전개」,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9.
이나다 나쓰코, 「동아시아 의례 연구의 새로운 시각—'물품 목록'의 검토에서—」, 『동서인문』 16, 2021.
이용진, 「魏晉南北朝時代 불교의례용 柄香爐와 居香爐」, 『東洋美術史學』 12, 2021.
주경미, 「法門寺塔 地宮出土 唐代 舍利莊嚴具의 研究」, 人文科學研究所 編 『실크로드 문화와 韓國文化: 研究史·總論·考古·美術』,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7.
_____, 『중국 고대 불사리장엄 연구』, 일지사, 2003.
_____, 「신라 사리장엄구와 중국 불교문화의 상관성 연구」, 『불교학연구』 61, 2019.
한금과, 「밀교와 중국문화—대홍선사에서 법문사까지」, 『회당학보』 17, 2012.

3. 동양어 문헌

- 姜捷, 『法門寺珍寶』, 西安: 三秦出版社, 2012.

- _____,「法門寺唐塔地宮出土的香具及其意義」,董淑燕·黎毓馨 主編,『香遠益清:唐宋香具覽粹』,北京:中國書店,2015.
- 權飛,「法門寺唐塔地宮出土唐代香料初探」,『農業考古』第4期,2016.
- 羅炤,「略述法門寺塔地宮藏品的宗教內涵」,『文物』第6期,1995.
- 唐普式,「法門寺塔地宮的唐密曼荼羅之我見-兼與羅炤先生商榷」,『佛學研究』第3期,1997.
- 董淑燕,「唐宋時期的香具與佛事」,董淑燕·黎毓馨 主編,『香遠益清:唐宋香具覽粹』,北京:中國書店,2015.
- 董淑燕·黎毓馨 主編,『香遠益清:唐宋香具覽粹』,北京:中國書店,2015.
- 毛小東,「法門寺唐鎏金銀龜盒實為香具考」,『農業考古』第2期,2018.
- 陝西省法門寺考古隊,「扶風法門寺塔唐代地宮發掘簡報」,『文物』第10期,1988.
- 陝西省考古研究院 外,『法門寺考古發掘報告』,北京:文物出版社,2007.
- 深圳博物館 外,『曼荼羅:法門寺與唐代密教藝術』,北京:文物出版社,2024.
- 楊水田,「法門寺〈物帳碑〉記帳方法淺析」,法門寺博物館 編,『法門寺博物館論叢(第1輯)』,西安:三秦出版社,2008.
- 梁子,「法門寺文物研究的幾個問題」,『文博』第1期,2000.
- 梁子·謝莉,「唐人的香事概況」,『文博』第4期,2005.
- 揚之水,「蓮花香爐和寶子」,『文物』第2期,2002.
- 嚴耀中,「在中國的加內塞和毗那夜迦」,『文物』第2期,2017.
- 呂建福,「關於法門寺地宮密教文物及其內涵研究中的若干問題」,法門寺博物館 編,『法門寺博物館論叢(第1輯)』,西安:三秦出版社,2008.
- _____,「晚唐密教高僧智慧輪生平及其思想」,法門寺博物館 編,『法門寺博物館論叢(第4輯)』,西安:三秦出版社,2012.
- 冉萬里,「唐代金屬香爐研究」,『文博』第3期,2000.
- _____,「略論隋唐時期的香爐」,『西部考古』第9輯,2015.
- 吳立民·韓金科,『法門寺地宮唐曼荼羅之研究』,香港:中國佛教文化出版有限公司,1998.
- 王郁風,「法門寺出土唐代宮廷茶具及唐代飲茶風尚」,『農業考古』第7期,1992.
- 王倉西,「淺談法門寺地宮出土部分金銀器的定名及用途」,『文博』第8期,1993.
- 王超,「從法門寺地宮出土“象首金剛銅香爐”談唐密教中毗那夜迦(Vināyaka)形象的流變」,『美與時代創意新』第6期,2019.
- 王惠民,「敦煌與法門寺的香供養具-以“香寶子”與“調達子”為中心」,『敦煌學輯刊』第3期,2011.
- 魏洁,「唐宋香爐設計研究」,江南大學 博士學位論文,2017.
- 劉寧,「法門寺地宮出土的香囊」,『文博』第1期,2003.
- 李發良,「關於唐代諸帝迎奉法門寺佛骨次數的再探討」,法門寺博物館 編,『法門寺博物館論叢(第2輯)』,西安:三秦出版社,2009.
- 任新來,「試論法門寺地宮文物與唐代佛教密宗的關係」,『文博』第4期,1992.
- _____,「法門寺茶器具考釋」,『農業考古』第2期,2013.
- 齊東方,『唐代金銀器研究』,北京:中國社會科學出版社,1999.
- _____,「唐代金銀器考:以三件龜形器為例」,『裝飾』第12期,2022.

- 陳文華,「法門寺地宮出土的茶具“風爐”質疑」,『農業考古』第7期,2007.
- 崔菊姬,「中國古代長柄香爐」,『中原文物』第5期,2016.
- 韓金科,「法門寺地宮唐密曼荼羅世界全面破譯」,『世界宗教研究』第3期,1995.
- 韓偉,「從飲茶風尚看唐代金銀茶具」,『文物』第10期,1988.
- _____,「法門寺唐代金剛界大曼荼羅成身會造像寶函考釋」,『文物』第8期,1992.

4. 서양어 문헌

- Wang, Eugene Y. “Of the True Body: The Famen Monastery, Relics, and Corporeal Transformation in Tang Imperial Culture.” in *Body and Face in Chinese Visual Culture*, ed. Wu Hung and Katherine R. Tsiang, Cambridge, MA and 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2005: 79-118.
- Wang, Eugene Y. et al. *Secrets of the Fallen Pagoda: The Famen Temple and Tang Temple and Tang Court Culture*, Singapore: Asian Civilisations Museum, 2014.
- Ren, Meng, Ren, Xinlai, Wang, Xinyi and Yang, Yimin. “Characterization of the incense sacrificed to the sarira of Sakyamuni from Famen Royal Temple during the ninth century in China.”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19, no. 21, (2022): 1-10
- Karetzky, Patricia Eichenbaum. “Esoteric Buddhism and the Famen Temple Finds.” *Archives of Asian Art* 47, (1994): 78-85.

Reference

1. Primary Sources

Ilch'egyŏng ūmŭi
Pulchŏng chonsŭng tarani yŏmsong ūgwi pŏp
Sosillji kalla kyŏng
Taebiroch'ana sŏngbul sinbyŏn kaji kyŏng
Taebiroch'ana sŏngbulgyŏng so
Taebiroch'anagyŏng kongyang ch'aje pŏpso
Taranichipkyŏng

2. Secondary Sources in Korean

- Chu, Kyöng-mi. "Pömmunsa'tap chigung ch'ult'o Tangdae sari chang-ömgü üi yön'gu." In *Silk'ürodu munhwa wa Han'guk munhwa: Yön'gusa, ch'ongnon, kogohak, misul* edited by Inmun Kwahak Yön'guso, 475-525. Taejön: Ch'ungnam Taehakkyo Inmun Kwahak Yön'guso, 1997.
- _____. *Chung-guk kodaie pulsari chang-öm yön'gu*, Ilchisa, 2003.
- _____. "Silla sari chang-ömgü wa Chungguk pulgyo munhwa üi sanggwansöng yön'gu." *Pulgyohak yön'gu* 61 (2019): 205-239.
- Han, Küm-gwa. "Milgyo wa Chungguk munhwa: Taehüngsönsa esö Pömmunsa kkaji." *Hoedang hakpo* 17 (2012): 108-132.
- Inada, Nats'ük'o. "Tong-Asia üirye yön'gu üi saeroun sigak: 'Mulp'um mongnok' üi kömt'o esö." *Tongsö immun* 16 (2021): 571-595.
- Kim, Yöng-dök. *Milgyo munhwa üi ihae*, Söul: Han'guk Haksul Chöngbo, 2012.
- Kim, Yöng-dök, trans. and ed. *Taeilgyöng*, Söul: Tongguk Yökkyöngwön, 2007.
- _____. *Taebiroch'ana söngbulgyöng so*, Söul: Somyöng Ch'ulp'an, 2008.
- Kim, Hyön-nam. "Tang Hyönjong üi pulgyo chöngch'aek kwa milgyo." *Han'guk chonggyosa yön'gu* 12 (2004): 5-52.
- Michchihada, Ryoo-syu. *Chung-guk Pulgyosa*. Translated by Kye-hwan. Söul: Uri Ch'ulp'ansa, 2012.
- Noe, Üi-man and Cho, Adam. "Kyöngjöndül kwa chonsangdül: 9-segi Chungguk Pömmunsa esö palguldoen Kümganggye mandara." *Hoedang hakpo* 17 (2012): 262-284.
- Pak, So-ün. "Tangdae Pömmunsa chigung ch'ult'o yurigwi yön'gu." Master's thesis, Duksung Womans University, 2025.
- Pak, Ün-sön. "Pömmunsa söksil ch'ult'o Pongjinsin posalsang yön'gu: Mandanggimandara üi Chunggukchök chöngae." Master's thesis, Myöngji University, 2019.
- Yi, Yong-jin. "Wijin Nambukcho sidae pulgyo üirye-yong pyönghyangno waköhyangno." *Tongyang misul sahak* 12 (2021): 69-97.

3. Secondary Sources in East Asian

- Chen, Wenhua. "Famensi digong chutu de chaju fenglu zhiyi." *Nongye kaogu* 7 (2007): 121-123, 153.
- Cui, Juji. "Zhongguo gudai changbingxianglu." *Chongyuan wenwu* 5(2016): 76-84.
- Dong, Shuyan. "Tangsong shiqi de xiangju yu foshi." In *Xiangyuanyiqing: Tangsong xiangju lancui*, edited by Tong Shuyan and Li Yusheng, 8-45. Beijing: Zhongguo shudian, 2015.
- Dong, Shuyan, and Yusheng. Li, eds. *Xiangyuanyiqing: Tangsong xiangju lancui*. Beijing: zhongguo shudian, 2015.
- Han, Jinwei. "Famensi digong tang manchaluo shijie quanmian poyi." *Shijiezongjiaoyanjiu* 3 (1995):

289-291.

- Han, Wei, "Cong yincha fengsang kan famensi dengdi chutu de tangdai jinyin chaju," *Wenwu* 10 (1988): 44-56.
- _____. "Famensi tangdai jingangshidamandaluo chengshenshui zaoxiang baohan kaoshi," *Wenwu* 8 (1992): 41-54, 100.
- Jiang, Jie, *Famensi zhenbao*. Xian: Sanqin chubanshe, 2012.
- _____. "Famensi tang ta digong chutu de xiangju ji qi yiyi." In *Xiangyuanyiqing: Tangsong xiangju lancui*, edited by Tong Shuyan and Li Yusheng, 46-49. Beijing: Zhongguo shudian, 2015.
- Li, Faliang. "Guanyu tangdai zhudi yingfeng famensi fogu cishu de zai tantao." In *Famensi bowuguan luncong*, vol 2, edited by Famensi bowuguan, 6-14. Xian: Sanqin chubanshe, 2009.
- Liang, Zi. "Famensi wenwu yanjiude jige wenti." *Wenbo* 1 (2000): 22-31.
- Liang, Zi and Xie, Li. "Tangren de xiangshi gaikuang." *Wenbo* 4 (2005): 12-19.
- Liu, Ning. "Famensi digong chutu de xiangnang." *Wenbo* 1 (2003): 57-58.
- Lu, Jianfu. "Guanyu famensi digong mijiao wenwu ji qi neihan yanjiu zhong de ruogan wenti." In *Famensi bowuguan luncong*, vol 1, edited by *Famensi bowuguan*, 104-134. Xian: Sanqin chubanshe, 2008.
- _____. "Wantang mijiao gaoseng zhihuilun shengping ji qi sixiang." In *Famensi bowuguan luncong*, vol 4, edited by Famensi bowuguan, 145-155. Xian: Sanqin chubanshe, 2012.
- Luo, Shao. "Lueshu famensi ta digong cangpin de zongjiao neihan." *Wenwu* 6 (1995): 53-62.
- Mao, Xiaodong. "Famensi tang liujin yin guihe shiwei xiangju kao." *Nongye kaogu* 2 (2018): 62-69.
- Qi, Dongfang. *Tangdai jinyinqi yanjiu*. Beijing: Zhongguo shehui kexue chubanshe, 1999.
- _____. "Tangdai jinyinqi kao: yi sanjian guixingqi weilie." *Zhuangshi* 12 (2022): 12-14.
- Quan, Fei. "Famensi tang ta digong chutu tangdai xiangliao chutan." *Nongye kaogu* 4 (2016): 246-250.
- Ran, Wanli. "Tangdai jinshu xiangju yanjiu." *Wenwu* 3 (2000): 13-23.
- _____. "Luelun suitang shiqi de xianglu." *Xibu kaogu* 9 (2015): 105-152.
- Ren, Xinlai. "Famensi chaqiju kaoshi." *Nongye kaogu* 2 (2013): 67-75.
- Shaanxisheng fanmensi kaogudui. "Fufeng famensi ta tangdai digong fajue jianbao." *Wenwu* 10 (1988): 1-28.
- Shaanxisheng kaogu yanjiuyuan, *Famensi kaogu fajuebao*. Beijing: Wenwu chubanshe, 2007.
- Shenzhen bowuguan, et al. *Mandaluo: famensi yu tangdai mijiao yishi*. Beijing: Wenwu chubanshe, 2024.
- Tang, Pushi. "Famensi ta digong de tang manchaluo zhi wo jian jianyu Luoshao xiansheng shangque." *Fojiaoyanjiu* (1997): 98-108.
- Wang, Cangxi. "Qiantan famensi digong chu tu bufen jinyinqi de dingming ji yongtu." *Wenbo* 8 (1993): 41-48.
- Wang, Chao. "Cong famensi digong chutu 'xiangshou jingang tong xianglu' tan tang mijiao zhong binayejia xingxiang de liubian." *Mei yu shidai chuanyiyi* 6 (2019): 49-51.

- Wang, Huimin. "Dunhuang yu famensi de xiang gongyangju: yi xiangbaozi yu tiaodazi wei zhongxin." *Dunhuangxue jikan* 3 (2011): 66-71.
- Wang, Yufeng. "Famensi chutu tangdai gongting chaju ji tangdai yincha fengsang", *Nongye kaogu* 7 (1992): 94-101.
- Wei, Ji, "Tangsong xianglu sheji yanjiu." PhD diss., Jiangnan University, 2017.
- Wu, Limin, and Jinke Han, eds. *Famensi digong tang mandaluo zhi yanjiu*. Xianggang:Zhongguo fojiao wenhua chubanshe youxiangongsi, 1998.
- Yan, Yaozhong. "Zai zhongguo de jianeisai he binayejia." *Wenwu* 2 (2017): 61-68, 6.
- Yang, Shuitian. "Famensi wuzhuangbei ji zhuang fangfa qianxi." In *Famensi bowuguan luncong*, vol 1, edited by Famensi bowuguan, 234-238. Xian: Sanqin chubanshe, 2008.
- Yang, Zhishui. "Lianhua xianglu he baozi." *Wenwu* 2 (2002): 70-76, 96.

4. Secondary Sources in English

- Karetzky, Patricia Eichenbaum. "Esoteric Buddhism and the Famensi Finds." *Archives of Asian Art* 47 (1994): 78-85.
- Ren, Meng, Xinlai Ren, Xinyi Wang, and Yimin Yang. "Characterization of the incense sacrificed to the sarira of Sakyamuni from Famen Royal Temple during the ninth century in China."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19, no. 21 (2022): 1-10.
- Wang, Eugene Y. "Of the True Body: The Famen Monastery, Relics, and Corporeal Transformation in Tang Imperial Culture." In *Body and Face in Chinese Visual Culture*, edited by Wu Hung and Katherine R. Tsiang, 79-118. Cambridge, MA and 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2005.
- Wang, Eugene Y., et al. *Secrets of the Fallen Pagoda: The Famen Temple and Tang Court Culture*. Singapore: Asian Civilisations Museum, 2014.

국문초록

본 연구는 당 황실의 밀교적 성격을 바탕으로 중국 法門寺 地宮 출토 향구의 구성과 도상적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法門寺衣物帳> 및 『大日經』 등 밀교 경전의 의례 체계와 대조하여 당대 밀교 향문화의 전개 양상을 고찰하였다.

법문사 지궁 출토 향구는 밀교 경전이 규정하는 塗香, 燒香, 闍伽水의 공양 체계를 실물로 완벽히 구현하고 있었다. 즉, 관념적 의례 규범이 향합, 향로, 알가병 등 유물 조합으로 실증된 것이다. 또한 지궁 후실의 기물 배치는 『佛頂尊勝陀羅尼念誦儀軌法』의 만다라 구성과 밀접하게 연관되며, 향구들이 불사리 봉영과 황실의 안녕을 기원하는 핵심 공양구로 기능했음을 확인하였다. 요컨대 법문사 지궁의 향구는 단순한 헌납품을 넘어 황실의 권위와 밀교 신앙이 결합된 상징적 매개체이자 世俗과 聖界를 잇는 주술적 통로로서 당대 밀교 의례의 실천적 지위를 대변한다. 본 연구는 출토 유물을 통해 베일에 싸여 있던 밀교 의례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복원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Abstract

Esoteric Buddhist Beliefs in the Tang Dynasty Viewed through Incense Implements Excavated from the Famen Temple Underground Palace

Choi, Gukhee*

This study analyzes the composition and iconographic characteristics of incense implements (*xiangju*) excavated from the underground palace of Famen Temple (*Famensi*), based on the Esoteric Buddhist character of the Tang imperial court. By comparing these artifacts with the ritual systems described in the *Famen Temple Inventory of Offerings* (*Famensi yiwuzhang*) and Esoteric scriptures such as the *Mahavairocana Tantra* (*Dainichikyō*), this paper examines the development of Esoteric Buddhist incense culture during the Tang Dynasty.

The findings reveal that the incense implements from the Famen Temple underground palace perfectly embody the ritual offering system of scented paste (*tuxiang*), burning incense (*shaoxiang*), and ritual water (*argha*), as prescribed in Esoteric texts. In other words, conceptual ritual norms were empirically manifested through a combination of artifacts, including incense boxes, censers, and *argha* vessels. Furthermore, the arrangement of objects in the rear chamber of the underground palace is closely linked to the mandala configuration described in the *Ritual Procedures for Recitation of the Usnisa Vijaya Dharani*, confirming that these implements functioned as essential offerings for the enshrinement of Buddhist relics and the well-being of the imperial family. Ultimately, the incense implements of the Famen Temple underground palace transcended mere offerings; they served as symbolic mediums merging imperial authority with Esoteric faith, acting as ritual conduits connecting the secular and sacred realm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reconstructs aspects of Tang Esoteric Buddhist rituals through the analysis of excavated artifacts, shedding light on practices that have long remained obscure.

* Research Professor, The Institute for Humanities Research of Duksung Women's University